

학내 건축공사 활발히 진행

예산확보 문제로 일정에 어려움 겪기도

학내 건물공사와 토목공사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정경대 기숙사는 내장공사와 철공사를 제외한 공사가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5월말 완공 예정이다.

한편 정경대 6층 증축은 현재 건설부가 시 건설당국에 허가신청을 아직 내지 않아 공사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으며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2만666평 규모로 지어질 시청각교육원 증축건물은 4월초에 공사를 시작한다. 현재의 시청각교육과 연결해 지어질 이번 증축건물은 지하 1

층에는 보일러실과 복사실, 인쇄실, 학생휴게실이 위치하며 3층에는 이학실습실과 소규모 강의실이 위치하게 된다.

또한 89년도부터 진행돼 온 치과대는 지하 1층과 지상6층(지하대 병원, 강의실, 연구실)으로 공간조정이 끝난 상태이나 완공일정은 미정이다.

한편 수원캠퍼스는 도서관이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40%정도의 골조 공사만 해놓은 상태이며 천문대도 80%의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현재 작업진행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연건평 5백31평규모로

지어지고 있는 산업대 증축 건물은 8월말 완공예정으로 활발히 진척되고 있다.

산업대 주변의 야구장과 종합운동장 공사는 배수로공사와 잔디공사를 남겨놓은 채 각각 80%와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숙사 국선관과 노천극장은 장소·규모와 공사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경희 민주단체 한마당 총학, 노조등 참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대학노동조합·경희의료원 노동조합은

오후 5시30분 임간교실에서 '경희가족 민주단체 한마당'을 개최한



◇사진은 현재 공사진행중인 천문대와 수원캠퍼스 도서관 전경

서울, 등록금 협의 막바지 절충
수원은 구체적 인상을 논의 안돼

〔속보〕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막바지 등록금협의를 위해 설문조사 등 학생들의 의견수렴에 힘쓰고 있다.

서울캠퍼스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8일 학교측에 제시한 학생측 요구안을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를 기초로 학생측 최종요구안을 작성, 오늘부터 20일까지 과밀단과대단위 총회를 개최하며 21일 학교측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소광호(법학·4) 예결위원장은 "등록금 협의가 단순히 상충지도부와 학교측의 숫자놀음이 아닌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근거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설문조사와 분임토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캠퍼스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올바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분임토의와 각과단대별 간부 교양작업에 들어갔다. 또한 수원캠퍼스 예결위원회는 학교측과 접촉을 통해 지난해 예산의 집행여부에 대하여만 논의되고 있어 등록금인상율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현 수원캠퍼스의 사회적 계열 과목중 '북한정치의 이해', '한국정치론', '정치경제학입문', '민주주의론' 등의 강사 내정에 있어 지난해 강사들이 전면 배제됨에 따라 학생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학적과는 "현재 영문증명의 경우 담당인원 부족과 수강신청에 따른 업무가 관계로 신청 후 5~10일 후에나 수렴할 수 있다며 영문증명 신청인은 충분한 시간적 기간을 고려 신청 접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학적과 '민원실'개설
병사업무등 일괄 처리

수원캠퍼스 학적과는 현재 학생처와 공동으로 담당해오던 증명에 관한 일반민원을 한곳에서 모두 처리할수 있는 민원실(가칭)을 이달초부터 개설운영하고 있다.

'민원실'은 현재 학적과 사무실 옆에 설치, 기존 학적과에서 처리하던 업무외에 학생처에서 처리하던 병사관련업무 및 열차 할인증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실의 업무는 실행되고 있으나 학교 승인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한편 학적과는 "현재 영문증명의 경우 담당인원 부족과 수강신청에 따른 업무가 관계로 신청 후 5~10일 후에나 수렴할 수 있다며 영문증명 신청인은 충분한 시간적 기간을 고려 신청 접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사임용 학생참여 논란

'정치경제학 입문'등 4개 강좌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이하교심위)의 건의로 지난해부터 개설된 강의는 90학년도에는 교심위에서 추천한 강사가 강의를 실시했으며 강의평가제 시행결과 교수법 및 학문의 만족도에서 학생들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남과 있었다. 그러나 주관학과인 행정학과는 이번학기 강사내정을 일방적으로 새로운 강사를 내정, 강의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심위 측에서는 "현재 2개강좌가 개설돼 있는 '북한정치의 이해' '정치경제학입문'의 경우 학교측 추천강사와 교심위추천강사가 1강좌씩 각각 나누어 맡도록 하고 나머지 1개강좌씩 개설돼 있는 '민주주의론'과 '한국정치론'의 경우에는 교심위추천강사가 강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등의 요구를 하고있다.

이에 반해 담당학과인 행정학

과에서는 강사선임시의 어려움, 이미 강의중인 강사들의 거취와 강사선임직업시 학생들의 사전추천이 없었음을 들어 학생측 제안을 수락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학교측은 또한 학생들의 의견을 가능한한 충분히 반영하고 참작할수 있으나 강사채용은 주관학과장이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심위측에서는 사전추천은 없었으나 그로인해 이번학기 강사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던 지난해 채용강사를 전면 배제한다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교육의 주체는 학교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역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학교측은 인식해야 할 것이며, 학사행정에 학생의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질수 있어야 할것이라 밝혔다.

이에 반해 담당학과인 행정학

교수평의회, 3개 특위구성
사립학교법 개정등 통한 권익보호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 도서관 3층 세미나실에서는 교수협의 회 교수평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권익·복지위원회

등 3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각각 허우성(문리대·철학)교수, 전영중(사회과학대·경영)교수, 김한상(외국어대·서반어)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수원 제23대 총학 발대식 20일 공대앞 통일광장서

수원캠퍼스 제23대 총학생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발대식을 공대앞 통일광장에서 거행한다.

식전행사, 고사, 출범식, 과학성장 노래경연대회, 단과대 뒤편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이번 출범식이 열림에 따라 제23대 총학생회는 비로소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제23대 총학생회의 조직은 최고의결기구로 학생총회가 총학생회 집행부로 사무국, 문화국, 전진국, 사회국 등을 두고 있

다. 이번 행사는 본교의 각 단체들이 서로의 상황과 활동내용등을 교류, 이후 제반 사안에 대해 공동대처해 나가 연대의 틀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와 사회의 민주화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제1회 참정회인상'을 수여한다.

학사위원회는 학사행정 전반에 관해, 예산·결산위원회는 학교측 예산을 검토·분석하고 제기하는 일을 하며, 권익·복지위원회는 교수들의 복지를 위해 월봉인상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권익보호에 힘쓰게 된다.

또 교수평의회는 교수협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교수협의회의 기능과 교수들의 자적들을 규정하고 있는 회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수협의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회의내용등을 홍보하는 회보를 한달에 1회이상 만들기로 했다.



승리의 확신을 향한 몸짓

동지를 '해고'로 빼앗겼을 때도 우리는 패배감에 젖은 낙담한 모습이 아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선다.

(장백기 전위원장 복직투쟁중) (김기태記者)

스쿨버스 배차시간 조정
서울행 막차 9시 변경고려

수원캠퍼스 스쿨버스 배차시간 조정요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쿨버스 업자측과 인권복지위원회는 10시까지 운행하던 기존의 강남행 버스노선을 9시로

만약 집포전 종전 이후 대기에서 운전기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를 대부분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강남행버스의 10시까지 운행이 어렵다고 학교측은 밝히고 있다.

한편 업자측은 강남행이 9시까지만 운행될 경우 야기되는 학생들의 불편을 감안 막차는 9시가

지만 운영되 이용자가 많은 경우 증차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집포전 종전 이후 대기에서 운전기사를 대거 채용하고 있고, 스쿨버스 기사를 대부분이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강남행버스의 10시까지 운행이 어렵다고 학교측은 밝히고 있다.

한편 업자측은 강남행이 9시까지만 운행될 경우 야기되는 학생들의 불편을 감안 막차는 9시가

지만 운영되 이용자가 많은 경우 증차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사 고

대학주보 40기 수습기자 모집

내일 오후6시 원서마감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사상의 자유를 위해 건전한 학풍과 대학문화를 건설하고 있는 대학주보가 91학년도를 이끌어갈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대상: 양캠퍼스 신입생
▲모집부문: 일반(취재, 학술, 특집, 문화)기자, 컷(만화)기자, 광고(기획, 카피, 도안)기자, 사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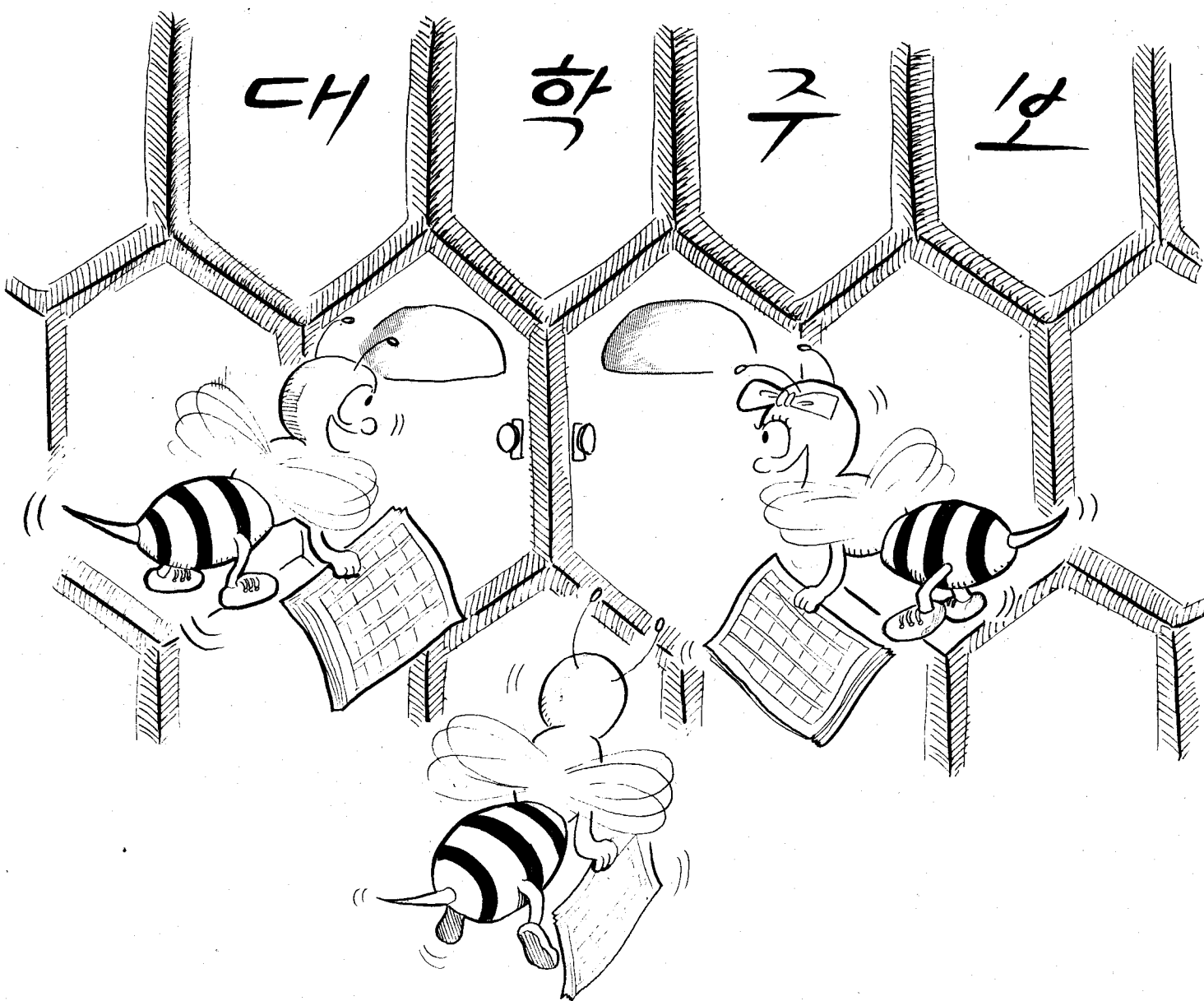
▲선발방법 및 일정
1) 필기시험: 작문, 인성검사
3월19일 오후6시 양캠퍼스 편집실

2) 면접 및 주제토론
△수원캠퍼스=3월20일 오후6시, 수원편집실
△서울캠퍼스=3월21일 오후5시, 서울편집실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편집실(구내전화 0095), 수원편집실(구내전화 2056)

▲원서접수 마감: 3월19일 오후6시까지

대학주보사



“여러분이 모아온 꿀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어렵게 글은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골장 대학주보사로 찾아오십시오.
당신을 반겨맞는 대학주보기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학주보는 여러분의 삶이 진솔하게 담긴 하나하나의 생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학주보사